



2026 VISION

훈훈한 구역, 함께 키우는 아이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도서 4장 9절)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말씀

여러분은 억울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거나, 친구가 내 이야기를 이상하게 퍼뜨리거나,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도 가만 있지 않을 거야”일 수 있어요. 당장 따지고 싶고 똑같이 상처 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순간에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시바가 찾아와 음식을 주면서 므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이어 바후림에서는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을 저주하고 돌까지 던집니다. 다윗에게는 힘센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당장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왕인 다윗이 명령만 하면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말합니다. 시므이의 말이 모두 옳다고 인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자신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분노부터 쏟아내기보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나를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나면 바로 반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말이 올라오거나, 친구가 나를 오해하면 곧바로 반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화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 내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로 되갚기 전에 잠시 멈추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상처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복수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일교회 가정사역부

예 배 순 서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 같 이

말씀 봉독 사무엘하 16:1~14절 다 같이 이

설교 역을할 때, 설교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말 씬 나 늬 다 같 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찬송과 공동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주님의 임재 앞에서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말과 상처를 받을 때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믿음을 주세요.
복수하기보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나눔



1.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아비새와 다윗은 각각 어떻게 반응했나요?
2.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화가 났을 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